

북한 “베라 1천200만장…서울까지 살포”

노동신문 1면 보도 “역대 최대규모 베라 투쟁 응징보복의 시각 다가와”

북한이 대남전단 1200만장과 풍선 3000개를 비롯한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고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의 ‘보도’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장의 각종 베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000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남조선 깊은 중심’을 언급한 만큼 대남전단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 통신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베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있다”며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베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베라 인쇄 모습. /연합뉴스

정확한 살포 시점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일 내에 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가 예정된 25일에 대남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은 “각 도·시·군 인쇄공장에서 수

백만장의 대적베라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추가 인쇄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베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남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적 베라 살포 투쟁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전인민적, 전사회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대남전단 살포는 북한이 지난 4일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래 나온 3번째 조치다. 북한은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차단했으며,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대남 베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의 대남베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일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대남전단 실물을 공개하며 전단 살포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통일부가 즉각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튿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7〉 고종

고종(高宗)은 남송의 초대 황제다. 이름은 조구로 자는 덕기(德基)이며 복송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복송의 마지막 황제인 흠종의 아우로 광평왕을 거쳐 강왕(康王)에 봉해졌다. 금이 남침해 수도 개봉을 점령하고 휘종과 흠종이 북으로 끌려가는 정간지변이 발생했다. 강왕은 강남으로 남하해 임안(현 항저우)에서 남송 왕조를 건국했다. 부친과 형이 생존해 있는 까닭에 즉위를 주저했다. 장준은 “왕께서는 황제의 동생이고 민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빨리 즉위하여 천하의 뜻에 부응하십시오.”라고 강력히 권했다. 응전부에서 즉위하니 송 고종이다.

고종은 즉위 초 대금 강경론을 채택

반환하고 송황제는 금황제를 신하의 예로 대하며 25만냥과 비단 25만필을 세공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금 왕실 내부의 정쟁으로 화의가 깨졌다. 중간, 종필 세력을 달피, 종반 세력을 모반죄로 몰아 처형하고 남송과의 조약도 무효화하였다. 1140년 5월 종필을 총사령관으로 한 금군이 재차 남침했다. 금군은 개봉과 장안을 점령하고 강왕을 넘어 남송에 진입했지만 악비, 장준, 한세충의 분투로 저지당했다.

주요 장군이 군권을 장악한 관계로 남송 조정은 대금 화의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진회는 황제의 허락에 예준, 한세충을 추밀사로 악비를 추밀부사로 기용해 사실상 병권을 박탈했다. 화의로 기운 장준은 진회에게 적극 협조했다. 진회는 악비를 역모죄로

복송 휘종의 아들…남송 초대 황제

해 이강을 재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양국간 전력 격차가 큰 현실을 인식하고 점차 화평론으로 기울었다. 화평론자인 황잠선, 왕백언을 재상으로 기용해 남침에 대비했다. 그러나 지개봉부 총택이 병사하는 등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결국 강왕을 건너 진강으로 내려가고 월주를 거쳐 북건설 운주까지 피신했다. 2년여 월주에 머물다가 1132년 임안으로 귀환했다. 이후 임안은 남송의 수도가 되었다. 1129년 명주 전투는 남방으로 피신하는 와중에 치러진 중대한 전투였는데 장준의 분투에 힘입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

1134년 금이 재차 남침하자 장준, 한세충, 악비 등이 화남 전투에서 분전해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휘종, 흠종 두 황제와 함께 북으로 잡혀간 진회가 남송으로 돌아오면서 대금 화의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당초 진회는 대금 강경론자였는데 금에서 역류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나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의 공격으로 진회 등 화평파는 정국 주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1137년 정월 휘종의 사망 소식이 남송에 전달되었다. 이를 계기로 금과 남송간 화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진회는 왕윤을 대표로 보내 금의 실력자 달피와 화평 교섭을 타결토록 해 1138년 1차 화의가 이루어졌다. 하남, 섬서 등의 영토를 남송에

몰아 처형했다. 가산도 몰수하고 유족을 지방으로 내쳤다. 이로써 화의파가 힘을 얻었다. 금나라도 종간이 사망하고 종필이 군권과 민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양측은 1142년 송·금 화약에 합의했다. 회수를 경계로 삼고 송은 25만냥, 비단 25만필을 매년 세금으로 보내기로 했다. 휘종의 관도 돌려보냈다. 이로써 장기간 화평이 유지되었다. 재상 진회는 1155년 사망할 때까지 대금 화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남송은 회동, 회서, 호광, 사천 네 지역에 총령을 두고 문관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고종은 여러번 금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두 황제의 귀환을 요구했다. 금국 기정사(金國祈請使)라는 사절을 대동해 주재한 종환이 도중에 억류시키는 바람에 금 황실에 갈수가 없었다. 고종이 두 황제의 귀환을 간절히 희망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즉위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29년 묘부와 유정인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 어영사 왕연을 죽이고 고종의 퇴위 및 응우태후 맹시의 섭정을 요구했다. 각지에서 근왕군이 일어나 다시 권좌에 복귀할 수 있었다. 1156년 흠종이 이극광 오국성에서 죽었다. 1162년 양자인 조신에게 양위하니 효종이다. 태상황제가 되어 1187년 81세로 죽었다.

아베 지지율 36%로 추락 집권 이후 두번째로 낮아 측근 의원 구속에 직격탄

일본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이 부인과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하락했다.

교도통신이 20~21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29~31일 조사 때보다 2.7% 포인트 하락한 36.7%로 집계됐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 비교하면 이번엔 집계된 내각 지지율은 가케(加藤)학원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정국이 들끓던 2017년 7월(35.8%)에 이어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응답자 비율은 49.7%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4.2% 포인트 상승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53.9%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응했다.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중의원 의원인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菜里) 참의원 의원과 함께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바리케이드 설치된 남군사령관 동상 2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로버트 리 남군사령관 동상 주위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리 장군 동상 철거를 지시했으나 법원 판결에 의해 보류된 상태다. 최근 이 동상은 인종차별 혐의 시위대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취소’ 한국요구에 “약속 이행” 또 억지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과 관련 자신들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린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또 억지를 부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물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으로부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으나”는 질문에는 “현시점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통

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행해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